

추 부총리,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에서 개도국 경제성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에 대해 선도발언

- 한국의 높아진 경제역량을 확인, 국제사회 주요 이슈에서 우리 의견 피력
- 주요 20개국(G20)뿐 아니라 주요 7개국에서의 협력 추진(이태리), 노동·교육·연금 분야 정책경험 공유(싱가포르) 등 주요 7개국(G7) 회원국·초청국과의 협력 강화

추경호 부총리는 5.11(목)~13(토), 일본 니가타에서 열리는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였다.

* G7 회원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및 초청국(한국, 인도, 인니, 브라질, 코모로, 싱가포르) 재무장관, IMF·WB 등 국제기구 총재 등 참석

추 부총리는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 해결’에 관한 첫 번째 세션에서 선도발언을 통해 최빈국에서 경제발전을 이룩한 우리나라의 성장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이 빈곤을 해결하고 성장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G7 등 선진국의 지원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아울러,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글로벌 협력’에 관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팬데믹 이후 약화된 각국 재정여력 하에서 개도국 구조개혁 지원방안으로서 IMF의 회복·지속가능성기금(RST)의 유용성을 설명하고, 개도국에 대한 양질의 인프라 공급 및 글로벌 공급망 협력에 있어 한국의 참여 의지에 대해 발언하였다.

또한, 추 부총리는 이번 출장을 계기로 내년도 G7 의장국인 이태리의 지안카를로 조르제띠(Giancarlo Giorgetti) 재무장관을 만나 앞으로는 양국이 모두 속한 G20뿐 아니라 G7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당부하였으며, 초청국으로 참석한 싱가포르의 로렌스 웡(Lawrence Wong)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는 한국이 구조개혁을 추진중인 노동·연금·교육 분야에서의 양국간 정책경험 공유와 통상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1.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 · 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

추경호 부총리는 5.11(목)~13(토), 일본 니가타에서 열린 G7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였다.

< G7 재무장관회의 확대세션 개요 >

- (일시/장소) 5.12(금), 13:00~20:30 / 일본 니가타
- (프로그램) ❶오찬세미나, ❷공식 사진촬영, ❸워킹세션 I, ❹워킹세션II, ❺환영만찬
- (세션별 의제)
 - ① (워킹세션 I) 저소득국 경제적 어려움 해소 및 성장잠재력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 지원 방안 및 글로벌 부채문제 해결 모색
 - ② (워킹세션II) 기후변화·팬데믹 등 글로벌 위기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자원 확충, 개도국 인프라·민간투자 활성화 및 글로벌 공급망 회복을 위한 협력 등

먼저, 추 부총리는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 해결’에 관한 세션①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전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경제발전을 실현한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빈곤 완화와 경제성장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추 부총리는 먼저, 투자를 위한 자본조달 여력이 부족한 저소득국에 대해서는 다자개발은행(MDB)의 지원과 선진국의 원조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MDB에 대한 충분한 자원확충과 저소득국 부채해결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경제구조 고도화를 추진 중인 중소득국의 경우에는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기술·제도 발전경험 전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04년부터 실시 중인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을 소개하고, 선진국들이 OECD·G20 등의 개도국 역량 강화 활동을 지원해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추 부총리는 과거 한국이 세계분업구조에 참여하여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룬 것처럼, 녹색 전환 등 선진국의 산업 정책이 개도국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제약하지 않도록 유의함과 동시에 특정 생산품에 대한 부분 FTA나 FTA보다 탄력적인 경제동반자협정 등 선진-개도국간 협력 모델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이어서, 추 부총리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글로벌 협력’에 관한 세션②에서 경제 구조 변화가 본격화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개도국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먼저 추 부총리는 팬데믹 이후 각국 재정 여력이 감소한 점을 감안하여, 개발재원을 확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제안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이 개도국의 장기 구조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SDR을 통해 조성한 회복·지속가능성기금(RST)을 좋은 사례로 언급했으며, 한국도 글로벌 재원보강에 적극 기여할 것임을 약속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공공-민간, 국제개발기관 간 협력 등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을 통해 개도국에 양질의 인프라를 공급해야 함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공공-민간 매칭하는 ‘PIS 펀드’와 EDCF, 수출입은행 등이 글로벌 기관들과 공동사업 발굴 등에 있어서 협력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 PIS(Planet Infrastructure Smart-city) 펀드: 조성목표액 1.5조원 중 1.1조원 조성 완료

마지막으로, 추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를 제안하며, 한국도 글로벌 공급망 협력에 활발히 참여할 것임을 언급했다.

추 부총리의 이번 G7 재무장관회의 참석은 G7 회원국·초청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한국의 경제역량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식량·에너지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과 부채 및 MDB 재원 보강 등 국제사회 주요 의제에서 우리의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 G7 회원국 및 초청국과의 협력 강화

【 이태리 재무장관 면담결과 】

— G20뿐 아니라 G7에서도 공조 강화, 공급망·자유무역·기후 분야 협력 추진 —

추 부총리는 내년도 G7 의장국인 이태리의 지안카를로 조르제띠(Giancarlo Giorgetti)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실시하였다. 추 부총리는 이태리가 의장직을 수임한 ‘21년 G20에서 오늘날 글로벌 개발금융 관련 주요 이슈인 다자개발은행의 자본적정성체계 검토*(Capital Adequacy Framework review) 등 시의 적절한 의제가 발굴·추진되었다고 평가하면서, 내년에도 성공적인 G7 운영을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앞으로 양국이 속한 G20뿐 아니라 G7에서도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 증자 없이 다자개발은행의 現 신용등급(AAA)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대출 규모 확대 방안 모색 → 현재 은행별로 CAF 검토 권고사항의 이행방안 마련 중

또한, 추 부총리와 조르제띠 재무장관은 팬데믹 이후 양국 경제회복 양상과 식량·에너지 위기로 심화된 세계 물가상승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추 부총리는 공급망 이슈, 자유로운 무역과 및 녹색 전환 등 최근 국제사회의 주요의제에서 양국이 협력해나가자고 발언하였다.

【 싱가포르 부총리 겸 재무장관 면담결과 】

- 노동·연금·교육 등 분야 정책경험 공유, 통상정책 협력 등 양국 경험 강화 -

추 부총리는 로렌스 웡(Lawrence Wong) 싱가포르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노동, 연금, 교육 등 분야 정책공조와 통상정책 등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의 경직적인 노동시장과 저출산 등에 대응해 노동, 연금, 교육 등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향후 이러한 분야들에서 양국이 지속적으로 정책경험을 공유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규칙 기반의 다자 무역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통상정책 협력을 강조했으며, 특히, 올해 1월 발효된 한-싱 디지털동반자 협정을 시작으로 디지털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임에 공감했다. 양국은 향후 문화·콘텐츠, 금융 및 핀테크, 지속가능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담당 부서	국제금융국 다자금융과	책임자	과 장
		담당자	사무관
			곽소희 (044-215-4810)
			홍석찬 (hsc1006@korea.kr)

